

새움터는 1996년에 11월에 동두천의 기지촌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기지촌에서 억압 받고 소외된 삶을 살고있는 기지촌 여성들과 혼혈아동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945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시작된 기지촌은 현재, 약 95개의 미군기지와 36,0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장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지촌'의 실질적 의미는 '경제·문화적으로 미군기지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과 상업의 기반으로 유지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지촌에는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서 힘겹고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미군 당국과 한국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여성들의 어려움을 감추고 외면해 왔습니다.

새움터의 활동은 아동센터, 재활센터, 상담센터 세 개의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아동센터는 40명의 아동들에게 공부방 프로그램, 진학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혼혈아동들이 비혼혈아동들과 함께 교육받고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센터는 여성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꽃을 이용한 물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작품들을 모아 '동두천 아리랑'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행사를 통해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직업재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기지촌 지역 여성들과 아동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상처, 질병, 빚, 범죄 피해 등 여성들을 자립할 수 없도록 하는 많은 원인들을 상담을 통해 파악,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새움터의 운영은 그다지 순조롭지 못합니다.

오늘 팔린 물품들은 새움터의 이 달 집세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